

어느 노래방에는 ‘아침이슬’을 부르는 데 남녀가 열렬히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아빠와 크레파스’라는 노래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정장한 신랑이 그윽히 서로의 눈을 들여다 보는 엉뚱한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노래방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들과 노래방이 우리사회 성원들간의 고립화를 연장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높은 가운데 노래방의 열풍은 이제 안방에서까지

즐길 수 있게 됐다.

TV에서도 노래방 류의 프로그램이 보이고 TV와 비디오케를 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신제품도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노래방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때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 단속한다면 건전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기다.

〈김명순 기자〉